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013, Vol. 25, No. 1, 83-109

심각한 수시 폭음을 하는 대학생의 음주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양 난 미† 송 영 이

경상대학교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심각한 수시 폭음에 관한 실제 음주경험과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심각한 수시 폭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남녀 대학생 1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고 합의에 의한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축어록을 주요개념과 범주로 유목화하였다. 연구결과 심각한 수시 폭음을 하는 대학생들은 전형적으로 친한 사람들과 일주일에 2-3회, 학교 근처에서 2-3차까지 술을 마시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술을 마시고 난 후 신체적 불편을 느끼고,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여 과음한 것을 후회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분이 나아진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이들은 전형적으로 술을 줄여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술을 마시는 이유는 기분이 좋지 않거나 좋은 감정관련, 친구나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는 관계관련, 안 좋은 일, 심심함, 술자리 게임 등 다양한 상황관련 요인들이 있었다. 또한 술을 통해 깊이 있는 대화를 하고 더 친해질 수 있으며 스트레스 해소가 된다고 응답하였다. 이들은 초등학교 시절에 처음 술을 마시고 고등학교 시절에 주기적으로 마시기 시작하며 대학 신입생 때, 학과나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폭음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위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시사점과 제한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대학생, 심각한 수시 폭음, 합의에 의한 질적 연구

---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1-332-B00741)

† 교신저자 : 양난미, 경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 (660-701) 경남 진주시 가좌동 900
Tel : 055-772-1265, E-mail : behelper@gnu.ac.kr

www.kci.go.kr

한국사회는 유달리 술에 관대하다. 한 신문기사에 따르면 하루에 술을 먹는 성인이 598만 명에 달하고 하루 술 소비량이 맥주 952만 병(500ml), 소주 896만 병에 이른다고 한다(조선일보, 2012. 5. 31.). 이는 매일 성인 6-7명 중의 한 명은 취할 정도로 술을 마신다는 의미이다. 많이 마실 뿐만 아니라 술과 관련된 사건과 사고도 많다. 예를 들면,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는 주폭자에 대한 신고가 2010년 한 해 동안 35만 건에 이르고 이들을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경찰력의 손실이 500억에 이른다고 한다. 또한 단순한 행패수준을 넘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일어난 강력범죄가 지난 5년간 발생한 5대 강력범죄 2,963,424건 중에서 877,808건(29.6%)을 차지하고 범죄유형별로 보면 살인사건의 37.9%, 강간사건의 38.5%, 폭력사건의 35.5%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어났다고 한다(조선일보, 2012. 6. 1.). 이러한 결과들은 음주가 개인적인 건강이나 부적응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임을 보여준다.

다른 연령대보다도 20대는 술을 많이 마신다.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의 음주율은 1986년 48.3%, 1995년 63.1%, 2006년에는 73.2%로 지난 20년간 약 25% 정도 증가하고 있고(양난미, 2010) 지난 1년간 1회 이상 음주한 사람의 비율인 연간 음주율도 대학생집단은 94.4%로 전체 성인의 78.5%나 미국 대학생의 86%와 비교하여 훨씬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노컷뉴스, 2011. 2. 16.). 또한 월간 음주율도 성인 남성은 75.8%, 여성은 43.4%인데 비하여 남자 대학생은 87.9%, 여자대학생은 82.6%로(서울신문, 2011. 2. 17.) 20대, 특히 대학생은 술을 마시는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임을 알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음주는 개인의 삶에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간, 소화기, 뇌혈관 및 암질환 등의 신체적 문제, 학습장애 및 감정장애와 같은 정신적 문제, 교통사고, 가정폭력과 같은 범죄, 직장에서의 생산성 저하와 같은 사회적 문제 등에 관련이 있음이 밝혀졌다(변영순, 2001; 보건복지부, 2007). 더욱이 대학생 음주는 숙취, 결석, 금전적 손해, 대인관계 문제, 권위자와의 갈등, 상해 등 다양한 부적응행동과 관련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장승옥, 2001; Wechsler, et al., 2002).

여러 음주 행동 중에서도 지난 2주 동안 여성의 경우 한 자리에서 4잔 이상, 남성의 경우 5잔 이상의 술을 마신 경험이 있는 폭음(binge drinking; Wechsler & Nelson, 2001)은 위험음주로 알려져 왔다. Wechsler와 Nelson(2001)은 폭음 대학생들이 폭음을 하지 않는 일반 음주 대학생들에 비해 결석, 과제미루기, 계획하지 않은 성관계, 기물파손, 상해, 음주운전 등 모든 면에서 부정적인 행동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고 하였다. 국내에서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술을 마시는 대학생은 그렇지 않은 대학생보다 데이트를 하면서 이성 친구에게 폭력을 행할 가능성이 높고, 데이트 폭력 가해 경험이 있는 대학생은 그렇지 않은 대학생보다 문제음주를 더 하는 경향이 있음이 밝혀져 폭음이 위험음주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서경현, 2003). 우리나라 대학생의 폭음 비율은 류미, 이민규와 신희천의 연구(2010)에서 76.5%, 양난미(2010)에서 64.73%로 나타나 미국 대학생의 44%에 비하여 훨씬 높은 수준이었다(천성수, 2007).

이에 더하여 개인의 음주습관은 음주를 시작하는 초기에 형성되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처음 술을 마시기 시작하는 20대의 음

www.kci.go.kr

주에 대한 이해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서경현, 김보연, 2011). O'Neill, Parra와 Sher(2001)의 연구에 따르면, 대학생의 과음은 음주관련 문제와 상관이 높으며 관련성의 강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약해졌지만 대학시절의 과음은 10년 후의 알코올 사용 장애를 유의하게 예측한다고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20대, 특히 우리나라 대학생의 음주비율, 음주량과 빈도가 다른 나라, 다른 연령대에 비해 심각함을 보여준다. 또한 개인의 음주습관은 음주를 시작하는 초기 단계에서 형성되고 한 번 형성된 음주습관은 잘 변화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어 대학생의 폭음과 같은 문제음주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런데 폭음에 대한 최근 연구들을 살펴보면 음주량이나 빈도에 따라 경험하는 음주문제가 질적으로 상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Pimentel & Presley, 2006). 예를 들면, Okoro 등(2004)은 지난 1달 동안 1회에 5잔 이상 마시는 경우를 폭음이라고 정의하고 빈도가 한 달에 3일 이상이면 수시 폭음으로, 1-2일이면 비수시 폭음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는데 수시 폭음자는 비수시 폭음자보다 스트레스, 우울과 감정적 문제들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 Read, Beattie, Chamberlain과 Merrill (2008)은 폭음의 기준에 더하여 여학생의 경우 한 자리에서 6잔 이상, 남학생의 경우 7잔 이상을 마신 경우를 심각한 폭음으로 구분하여 연구한 결과, 폭음과 심각한 폭음은 혈중 알코올 수준에 차이가 있어서 실제 취하는 정도에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위와 같은 결과들은 대학생의 음주문제를 보다 심도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폭음 유무보다는 폭음의 정도나 빈도를 세분화하여 탐색해 보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폭음정도에 있어서 심각한 폭음을 보이고, 폭음빈도에 있어서도 수시 폭음을 하는 대학생을 연구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이때, 심각한 수시 폭음이란 Okoro 등(2004)과 Read 등(2008)의 정의에 근거하여 지난 1달 동안 3회 이상 한 자리에서 여학생의 경우는 6잔 이상, 남학생의 경우는 7잔 이상으로 술을 마신 경험이 있는 경우로 정의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심각한 수준인 우리나라의 음주문제에 개입하기 위해서는 대학생의 음주문제를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심각한 수시 폭음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들의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파악한다면 앞으로 대학생의 음주문제를 예방하고 개입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더하여 알코올 중독과 같은 심각한 음주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개입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음주습관을 변화시키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진행된 연구(류미, 이민규, 신희천, 2010; 양난미, 2010; 한소영, 이민규, 신희천, 2010; Hildebrand, Johnson, & Bogle, 2001; Kassel, Jackson, & Unrod, 2000; McCabe, 2002)들은 대부분 음주량, 음주 빈도 및 음주문제를 연속적인 변인으로 가정하고 진행하였기 때문에 심각한 수시 폭음이라는 행동에 대한 질적인 이해가 어려웠다. 즉, 폭음 집단이나 무음주 집단과 다른 심각한 수시 폭음 집단의 독특한 경험에 대해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주로 양적인 연구에 치중되어 심각한 수시 폭음에 이르는 과정이나 이들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생생하게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특히, 양적 연구방법의 특성상 설계에 포함되지 않은 변인은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심각한 수시 폭

www.kci.go.kr

음이라는 경험이 전체적으로 기술되거나 경험 자체를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심각한 수시 폭음 대학생을 집중적·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이들의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질적으로 탐색해 보고자 한다.

그렇다면 어떤 변인들이 일반적인 대학생 음주나 폭음에 영향을 미치는가? 일반적으로 성별, 정서, 동기, 개인의 음주역사와 같은 개인심리적 변인이 대학생의 음주와 폭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이제까지 진행된 연구들을 간단히 살펴보면, 성별의 경우 일반적으로 남자 대학생이 여자 대학생에 비해 폭음정도와 폭음빈도가 더 높은 편이다(양난미, 2010; 정원철, 2006; Ham & Hope, 2003). 하지만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음주 후에 경험하는 음주관련 문제에는 남녀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양난미, 2010; 정슬기, 2008). 정서는 우울과 불안 같은 부정적인 정서가 폭음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한소영, 이민규와 신희천(2005)은 우울과 불안이 음주문제와 관련이 있음을 밝혔고 동일한 결과들이 다른 연구에서도 지지되었다(Archie, Zangeneh Kazemi, & Akhtar-Danesh, 2012; Lansford et al., 2008). 즉,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부정적 정서 수준이 높을수록 폭음과 같은 문제음주 수준 역시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음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다른 변인으로 술을 왜 마시는가를 의미하는 음주동기가 있는데(김인석, 현명호, 유제민, 2001) 일반적으로 음주동기가 높을수록 음주빈도나 음주량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Ham & Hope, 2003). 동기유형을 4가지 동기로 세분화하여 살펴본 Cox와 Klinger (1998)는 긍정적인 기분이나 행복감을 높이기 위해 술을 마시는 고양동기, 부정적인 정서를 감소시키거나 통제하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 대처동기, 사회적 비난이나 타인의 거부를 피하기 위해 마시는 동조동기, 그리고 긍정적인 사회적 보상을 얻고 친밀감을 얻기 위해 술을 마시는 사교동기 등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전체적으로 대처동기는 음주정도나 음주문제와 관련이 깊은(Cooper, 1994) 반면에 사교동기는 문제성 음주와 관련이 낮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Ham & Hope, 2003). 개인의 음주역사 혹은 대학 이전의 음주경험 역시, 이후 음주와 음주문제에 영향을 미치는데 Hilderbrand, Johnson과 Bogle(2001)에 따르면 고교시절 혹은 그 이전에 형성된 음주패턴은 이후 대학생활까지 이어진다고 한다. 또한 Harford, Wechsler과 Muthen(2002)는 고교시절에 심각한 음주일화가 음주문제나 음주운전과 같은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마지막으로 음주시작 연령도 중요한데 Thombs (2000)는 음주수준이 높은 체육전공 대학생들의 음주시작 시기가 빠르다는 점을 밝혔다.

위와 같이 대학생의 음주와 폭음에 관한 양적 연구가 국내외에서 다수 진행된 것에 비해 질적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음주와 관련된 질적 연구는 대부분 알코올 중독과 관련해 진행되었는데 여성 알코올중독자에 대한 연구가 대표적이다. 임선영, 조현섭과 이영호(2005)는 여성 알코올중독자가 중독에 이르는 과정을 합의에 의한 질적 연구방법으로 연구하였고 신영주와 김유숙(2009)은 근거이론으로 연구하였다. 두 연구는 여성 알코올중독자가 공통적으로 부정적 정서와 심리적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음주를 시작하고 상당히 오랜 시간을 걸쳐서 중독으로 진행됨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들의 연구는 이미 중독의 상태에 이

www.kci.go.kr

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진행되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음주자를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 선행 연구결과들을 종합하면 성별, 정서, 동기와 개인의 음주 역사와 같은 개인심리적 변인들이 폭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지만 이러한 연구결과들이 수시 폭음 대학생들에게도 적용가능한지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수시 폭음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실제 음주경험이 어떠한지, 이들의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탐색하고자 한다. 사회전반에 걸쳐 폭음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대학생들의 음주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수시 폭음 대학생들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수시 폭음 대학생들의 음주경험과 이들의 음주경력을 질적으로 분석해 봄으로써 대학생의 심각한 수시 폭음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통해 대학생 음주문화를 개선하고 20대가 보다 건강한 음주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심각한 수시 폭음 대학생의 음주경험은 어떠한가?(술을 마시는 과정과 마시고 난 뒤의 과정)

둘째, 심각한 수시 폭음 대학생들이 술을 마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셋째, 어떻게 심각한 수시 폭음에 이르게 되었는가?

넷째, 심각한 수시 폭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방 법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이 심각한 수시 폭음에 이르는 과정과 심각한 수시 폭음 경험에 대해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들의 경험을 편견 없이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위하여 개인의 경험을 깊이 있게 이해하면서도 평정자간의 일치와 합의를 강조하는 합의에 의한 질적 분석(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CQR)을 사용하였다. CQR은 Hill, Thompson과 Williams(1997)이 개발한 질적 연구방법으로 다수의 연구자가 합의팀을 이루어 연구결과의 대표성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연구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감수자를 통해 객관적인 시각을 도입하여 심층 탐색이라는 질적 연구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연구과정을 표준화하여 연구자들이 사용하기 쉽게 한 방법이다(한소영, 신희천, 2010).

일반적으로 CQR은 다음과 같은 구성요소를 지닌다(Hill, Thompson, & Williams, 1997). 첫째, 참가자의 반응을 제한하지 않도록 개방형 질문으로 자료를 수집한다. 둘째,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숫자가 아니라 언어를 사용한다. 셋째, 소수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연구한다. 넷째, 경험의 상세한 부분들을 이해하기 위해 전체 사례의 맥락을 사용한다. 다섯째, 기존의 구조나 이론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로부터 결론을 이끌어내는 귀납적 과정이다. 여섯째, 다양한 의견이 탐색될 수 있도록 3-5명의 연구팀이 모든 판단을 합의하여 가장 가능한 해석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일곱째, 합의에 의한 판단을 1-2명의 감수자가 검토하여 연구팀이 중요한 자료를 간과하지 않았는지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팀은 계속해서 원자료로 돌아가 결과와 결론들이 정확한지, 그 자료에 근

www.kci.go.kr

거한 것인지 확인한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CQR의 구성요소와 절차에 따라 자료를 분석하였다.

참여자

연구참여자

연구참여자는 다음 다섯 가지 기준에 의해 결정되었다. 첫째,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20대 남녀 대학생으로 선정하였다. 둘째, 음주량에서 지난 2주간 적어도 한 번 이상 심각한 폭음을 한 경험이 있는 자로 선정하였다. 심각한 폭음의 정의는 Wechsler와 Nelson(2001)이 제시한 폭음의 기준을 보다 세분화 한 Read 등(2008)의 기준인 한 자리에서 여성이면 6잔 이상, 남성이면 7잔 이상의 술을 마신 경험이 있는 자로 하였다. 셋째, 음주 빈도는 심각한 폭음을 1달 동안 1-2회 이상 경험한 수시 폭음자로 선정하였다. 넷째, 음주로 인해 실제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문제성 음주자로 선정하였다. 이때 문제성 음주자는 세계보건기구가 개발한 알코올 장애 진단검사(Babor, Fuente, Saunders, & Grant, 1989)에서 12점 이상을 받은 사람을 의미한다(정원철, 2006). 마지막으로 병리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을 제외하기 위하여 MMPI-2를 실시하였다. 하위척도에서 70점 이상의 점수가 있는 경우에는 심리검사 결과를 임상적으로 검토하여 병리적인 사람은 제외하였다.

참여자 모집 안내문을 보고 신청한 사람 중에서 다섯 가지 선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대학생 12명을 선발하여 면접 과정을 진행하였다. 이 중 처음 2사례는 면접과 평가의 예비자료로 사용하였고 최종 연구참여자는 10명이었다.

연구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은 여자 대학생 5명, 남자 대학생 5명이었고 연령은 만 20-26세(M=22.50

표 1. 연구 참여자 특성

번호	성	연령	전공	재학학기	1회 음주량	1주 음주빈도	AUDIT 점수
1	여	23	인문사회계열	7	11	3.50	25
2	여	24	인문사회계열	7	14	3.50	23
3	여	20	자연공학계열	1	7.5	3.00	22
4	여	20	자연공학계열	1	10	1.50	20
5	여	20	자연공학계열	1	10	1.00	16
6	남	22	자연공학계열	3	24	3.50	22
7	남	22	자연공학계열	3	14	3.00	20
8	남	26	인문사회계열	7	9	3.00	19
9	남	23	자연공학계열	5	10	2.00	17
10	남	25	자연공학계열	7	14	1.50	16
M		22.50		4.20	12.35	2.55	20

www.kci.go.kr

SD=2.12)로 첫 번째 선정기준을 충족하였다. 이들의 평균 재학 학기는 4.20학기(*SD*=2.70)이었고 계열별로는 인문사회계열이 3명, 자연공학계열이 7명이었다. 둘째, 이들의 음주량은 지난 2주간 술자리에서 한 번에 최소 7.50잔, 최대 240잔(*M*=12.35잔, *SD*=4.68)을 마셔서 심각한 폭음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었다. 셋째, 이들은 일주일에 평균 1-3.50회(*M*=2.55, *SD*= .96)의 술자리를 가지고 있어 수시 폭음자의 기준을 충족하였다. 넷째, 이들의 평균 AUDIT(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 점수는 최소 16점에서 최대 25점이었고 평균 20점(*SD*=3.06)으로 문제성 음주자로 분류되었다. 마지막으로 MMPI-2의 하위척도가 높은 경우는 2명이 있었으며 이들은 모두 9번 척도가 70-80점 사이를 보이고 있었지만 병리적이라고 판단되지는 않았기에 제외하지 않았다.

면접자와 합의팀

면접은 상담심리전공 석사과정에 있는 여성 4명에 의해 실시되었다. 면담자들은 상담 경력이 1년 이상의 상담심리전공 석사과정 중에 있는 4명의 여성으로, 연령은 50세, 44세, 34세, 26세였다. 신뢰성과 타당성이 있는 면접을 위해 면접자들은 첫째, 오리엔테이션, 면접 역할연습 등에 대한 3회기의 교육에 참여하였고 둘째, 주변에 있는 음주자 한 명에 대한 모의 면접을 실시하고 면접 내용을 검토하였으며 셋째, 처음 사례 두 개에 대한 축어록을 함께 검토하고 논의하였다. 자료수집에 앞서 면접자들은 음주에 대한 자신의 경험에 대한 음주 경험 보고서, 연구에 대한 기대와 편견 등을 기록하였다.

합의팀은 면접자 중 3명으로 구성하였다. 이들은 평균연령은 만 36.67세(*SD*=12.22)이었고 이전에 CQR을 사용한 연구에 참여해 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CQR에 대한 Hill 등의 1997년 논문과 2005년 논문을 함께 읽었고 CQR방법을 사용하여 국내학술지에 게재된 5편의 논문을 함께 검토하였다.

감수자

감수자는 연구자 2명이었다. 한 명은 상담심리전문가로 상담심리학 박사이며 이전에 CQR을 사용한 연구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연구자이고, 다른 한 명은 임상심리전문가이고 상담심리학 박사수료를 했으며 알코올 중독 전문병원에서 수년간 일한 경험이 있는 연구자이다. 감수자들은 면담 축어록과 영역 코딩, 핵심개념 코딩에 대한 1차 피드백과 교차분석 결과에 대한 2차 피드백을 합의팀에 제공하였다.

도구

음주질문지

연구참여자의 인적 사항(성, 연령, 전공, 재학학기, 전공), 1회 음주량(최근 2주간 한 자리에서 마신 술의 양), 1주 음주 빈도(한 주 평균 얼마나 자주 술을 마시는지) 등 평소의 음주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성 음주질문지

연구참여자의 음주문제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에서 개발한(Babor, et al., 1989) 알코올 사용 장애 진단검사(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AUDIT)를 서경현(2003)이 번안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음주와 관련된 문제를 가질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선별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음주 정

www.kci.go.kr

도에 대한 3문항, 알코올 의존에 대한 3문항, 유해음주에 대한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10문항 중에서 8문항의 응답방식은 0점 '전혀 없다'에서 4점 '거의 매일'의 5점 척도로, 나머지 2문항은 0점 '전혀 없다'에서 2점 '거의 1년 동안에 그런 적이 있다'의 3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음주로 인한 문제와 신체적 피해를 경험할 수 있는 고위험 음주를 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정원철(2006)은 12점 이상을 정상 음주와 문제성 음주를 나누는 절단점으로 제안하였다. 서경현(2003)이 보고한 *Cronbach's* α는 음주 정도가 .84, 알코올 의존이 .71, 유해음주가 .73, 전체 척도는 .86이었다.

면접질문지

면접을 위한 1차 질문지는 연구자들이 연구자와 면접자들의 음주경험 보고서, 대학생의 폭음에 대한 선행연구 및 CQR에 대한 선행연구 등을 참고하여 심각한 수시 폭음 대학생들의 음주경험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반구조화된 1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후 연구자와 면접자 간의 면접 역할연습, 모의면접 결과 분석, 예비사례 두 개에 대한 분석 결과에 따라 의미가 더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문항을 수정하였다. 그리고 피면접자들이 대답하기 어려워했고 본 연구문제와 거리가 있다고 판단된 2문항을 삭제하고 최종 9문항으로 수정하였다. 최종 면접질문에서 제외된 질문은 '이런 현상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약, 대책이 필요하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와 '오늘 면접을 하면서 당신의 음주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까?'였다. 최종 면접 질문지의 내용은 표 2에 제시하였다.

절차

참여자 모집과 선정

참여자 모집을 위한 홍보는 대학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심리학개론 및 심리학 전공 강의, 진로상담센터 프로그램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4주간 진행되었고 홍보내용은 전체 연구에 대한 안내, 연구진행 과정, 참여자 선정과정 등

표 2. 질문내용

질 문 내 용
1. 개인적으로 술을 마신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2. 술을 마시게 되는 과정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3. 술을 마시고 난 뒤의 긍정적, 부정적인 결과는 무엇인가요?
4. 술을 마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5. 처음 술을 마시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6. 음주량이 확실히 늘게 된 때는 언제인가요?
7. 개인적으로 술을 마시는데 영향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요?
8. 자신의 심각한 폭음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9. 대학생은 왜 자주 심각한 폭음을 하게 된다고 생각하나요?

www.kci.go.kr

이었다. 홍보내용을 보고 연구참여를 원하는 학생은 연구참여를 이메일로 신청하도록 하였다. 홍보내용에는 연구내용에 대한 안내, 연구참여자 조건, 연구참여 절차, 연구참여자 수당, 연구자 연락처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4주간 총 35명이 신청하였고 선착순으로 27명을 예비참여자로 선정하여 예비면접을 실시하였다. 예비면접은 연구내용에 대한 소개, 연구참여 동의, 음주질문지, 문제성 음주질문지와 MMPI-2를 실시하고 선정기준에 대한 응답을 연구자가 확인하였다. 예비면접은 대략 50-70분 정도 소요되었고 이 과정을 통해 선정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는 연구참여자를 최종 12명 선발하였다. 예비면접 및 최종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참여비가 지급되었다.

면담과정과 축어록 작성

연구참여자는 전화연락을 통해 면접시간을 정하고 이메일을 통해 연구참여 동의서와 면접질문지를 보내주어 면접에 준비하도록 하였다. 연구참여자가 면접장소에 도착하면 간단한 안부인사와 함께 음료수가 제공되었고 면접 전에 연구참여 동의서를 받았으며 면접질문지를 제시하고 면접을 시작하였다. 면접은 상담실이나 세미나실에서 이루어졌고 약 60분-9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녹음기로 전 과정이 녹음되었다.

면접을 진행한 후에 총 12사례에 대한 완전 축어록을 작성하였다. 축어록을 만드는 과정에서 내담자의 이름이나 장소 등의 개인정보는 모두 기호나 숫자로 변환하였다. 완성된 축어록을 1차로 면접자가 녹음파일과 대조하여 잘못된 내용을 수정하였고 다음으로 연구참여자들에게 다시 확인 받았으며 이때 연구참여자가 명료화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추가설명을 하도록 하였다.

영역과 핵심개념 부호화

먼저 합의팀이 예비사례 2개에 대한 예비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합의팀 3명이 예비사례1에 대해서 각자 축어록을 꼼꼼히 읽고 독립적으로 영역을 분류하고 요약한 이후, 함께 모여서 영역과 영역요약을 확인하고 불일치하는 점에 대해 논의하여 합의하는 과정을 거쳤다. 다음으로 예비사례2를 동일한 방식으로 분석하고 영역 부호화에 대한 의문점을 논의하고 해결하였다.

본격적인 영역과 핵심개념 코딩을 위해 4개의 사례는 합의팀 3명이 독립적으로 읽고 영역과 영역요약을 한 이후에 함께 논의하여 영역을 부호화하였다. 나머지 6사례는 연구의 효율성을 위해 연구자 1명이 우선적으로 부호화한 것을 나머지 합의팀에서 함께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핵심개념을 정리한 이후에 함께 모여서 핵심개념을 확인하고 합의하여 결정하였다. 이때 핵심개념은 참여자의 말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편집하는 과정으로 가능하면 연구참여자의 조망과 명백하게 드러난 의미를 유지하면서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하여 정리하였다.

영역과 핵심개념의 감수

합의팀에 의한 영역과 핵심개념을 합의한 자료를 감수자 2명이 개별적으로 검토하였다. 감수자는 먼저 원자료를 철저하게 읽고 원자료가 각 영역에 제대로 분류되었는지, 모든 중요한 자료가 추출되었는지, 핵심개념의 단어가 간략하고 원자료를 잘 반영하는지를 점검하였다. 2명의 감수자들은 주로 사례별로 핵심개념의 단어 5-9개 내외를 추가하는 의견

www.kci.go.kr

을 제시하였고 합의팀은 이를 다시 논의하여 일부 핵심개념을 수정하거나 기존 합의내용을 유지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영역과 핵심개념을 수정하였다.

교차분석과 감수

영역 및 핵심개념을 범주화하기 위해 10사례들 사이에서 핵심개념의 유사성이 있는지, 동일한 범주로 묶을 수 있는지 확인하였고 묶인 범주에 대해서는 이름을 붙였다.

이 과정에서도 합의팀내에서 이견이 나타나면 논의를 통해 합의하였다. 그리고 결정된 범주가 전체 사례에서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 빈도를 표시하였는데 10사례 모두에서 나타나는 범주는 '일반적'으로, 5-9사례에서 나타나는 범주는 '전형적'으로, 2-4사례에서 나타나는 범주는 '드문'으로 표시하였고, 1사례에서만 나타나는 반응은 예외적인 경우로 제외하였다 (Hill, et al., 1997). 10사례의 교차분석 결과에 대해서 감수자 2명이 독립적으로 검토하고 검토한 내용을 합의팀이 다시 논의하여 수정하였다. 수정된 부분은 술을 마시는 이유에서 이차적 획득 요인을 추가한 것과 술과 관련된 가족상황에서 아버지 이외의 범주들을 아버지 이외 가족구성원으로 통합한 것 등이었다.

안정성 확인

교차분석과 감수가 끝난 후에 10사례를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하면서 새로운 영역이 생겼는지 빈도에는 변화가 없는지 안정성을 확인하였는데, 영역과 빈도에 변화가 없어 결과가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 과

술을 마시게 되는 과정

술을 함께 마시는 대상으로는 전체 사례에서 한 사례를 제외한 모든 사례에서 친한 사람, 친구와 술을 마신다고 보고하였고 동료, 선후배와 술을 마신다고 보고한 경우도 절반에 달했다.

전형적으로는 일주일에 2-3회 술을 마셨고 쉬는 날(드문)이나 사람들과 모이게 될 때(드문) 술을 마시기도 하였으며 마시는 장소는 학교 근처에서 마시는 것이 전형적이었다. 한 번 모이면 2-3차까지 술을 마시는 것이 전형적이었으며 4차 이상으로 가는 경우도 전체 10사례 중에서 4사례나 되었다.

> "저는 항상, 그 고향이 부산인데, 주말이나 시간이 나면은 개강 중에도 항상 만나는 친구들이 저 말고 세 명 더 있어요. 그래서 네 명이서 친한데. 무조건 걔네들이랑은 만나면 술을 마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리고 소주를 주로 마시는 것 같아요. 학생이니까 돈이 그래 많지도 않고 해서.. 주로 그런 친한 사람들이랑 먹지.." (사례1)

> "또... 그냥 친구들 만나서 놀 때는 항상 술 마시는 거 같아요.. 네, 주로 친구들.." (사례9)

> "복학하고 나서, 선배들.. 몇 명하고 친해졌어요. 몇 명하고 친해지고 또 이번에 과친구를 남자친구로 사귀게 되면서 그 친구 때문에 알게 된 선배들하고는 술자리가 엄청 잦아요. 왜냐면 그 선배들이 다 술을 좋아하거든요."(사례2)

www.kci.go.kr

"보통은 그냥 친구들끼리 막 이야기하다가 그냥.. 담에 뭐, 술 한 잔 하자, 이렇게. 술 먹자 하거나 친구가 그렇게 하거나 해서. 다음에 이야기 할 것 있으면 그 때. 오늘 약속잡자고 해서 저녁 먹고, 만나거나 아니면 같이 저녁 먹고 술 먹거나.."(사례3)

"음 시험기간 빼고는요. 거의 그냥 술 거의 일주일에 한 두 세 번, 두 번씩. 그 정도 먹으러 가고"(사례4)

"술 많이 먹다가 이제 소주가 좀 취한다 싶으면 이제 맥주집 같은 데 가서 이제 술 좀 깨고 또 먹으러 가는 경우도 많구요. 그 다음에 또 소주.. 이제 돈에 따라... 아무래도 학생이다 보니까 자금이 좀 있으면은 3차, 4차 그렇게 가고, 더

표 3. 술을 마시게 되는 과정 및 마시고 난 뒤의 변화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핵심개념	영역	범주	응답빈도
술을 마시게 되는 과정	누구와	• 동료, 선후배	전형적(5)
		• 친한 사람, 친구	전형적(9)
	언제	• 일주일에 1회	드문(3)
		• 일주일에 2-3회	전형적(5)
		• 일주일에 4회 이상	드문(2)
		• 사람들과 모이게 될 때	드문(4)
		• 쉬는 날을 골라	드문(2)
	어디서	• 학교 근처	전형적(7)
	어떻게	• 2-3차까지	전형적(9)
		• 4차 이상으로	드문(4)
술을 마시고 난 뒤의 변화 과정	신체적 반응	• 신체적으로 불편함(속쓰림, 구토, 피곤함, 두통 등) 느낌	전형적(7)
	부정적 영향	• 생활에 지장을 줌	전형적(8)
	감정	• 기분 좋아짐	전형적(6)
		• 기분 좋지 않음	드문(2)
		• 술 마신 다음날 술자리에서 과음한 것을 후회	전형적(5)
		• 술자리에서의 기억 떠올리며 창피함 느낌	드문(2)
		• 술자리에서 잘못한 자신의 행동에 대해 후회	드문(2)
		• 예전의 힘들었던 일이 생각나 심란해짐	드문(2)
	태도	• 술 줄여야겠다 생각함	전형적(6)
		• 술자리에서 있었던 일을 떠올려 봄	드문(3)

www.kci.go.kr

갈 때도 있고.. 4차정도 가면 이제 해장국 집 같은데.. 감자탕이나.. 그런 거 먹으러 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4차가 5차가 될 수도 있고, 그 전에 얼마나 먹느냐에 따라 다른데.. 그 정도 되면 이제 4차, 5차 거의 다 가면 거의 마지막이잖아요. 그럼 마지막은 거의 해장국집."(사례9)

술을 마시고 난 뒤의 과정

술을 마시고 난 뒤에는 '전형적'으로 속쓰림, 구토, 피곤함, 두통 등 다양한 신체적 반응과 이후 생활에 지장을 느끼는 부정적 영향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감정적인 면에서 후회와 기분이 좋지 않음을 느끼는 것도 '전형적'이었고 기분이 나아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도 '전형적'이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는 술을 줄여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전형적'이지만 드물게는 술자리에서 기억이 떠올라 창피함을 느끼고 잘못한 행동에 대해 후회하며 예전에 힘들었던 일이 생각나 심란해진다고 보고하였다.

"뭔가 좀 씁쓸함..? 좀.. 술.. 술을 잘 먹는 그런 게 뭔가 좀.. 밑을 좋아한다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그니까 뭐라 해야 되지, 좀 뭔가 좀 씁쓸한 것 같아요. 되게. 어 뭐라 해야 되지, 너 좀 잘 먹네 이러면 저는 좀 잘 안 먹고 싶은데. 그니까 뭐 그렇게 뭐 먹다보니까 나는 막 그렇게 되고 내 이미지가 좀 약간 좀 손상된 거 같아요. 보여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사례5)

"음 많이 마시면 머리 아프고 막 그런 날은 아 왜 마셨을까 좀 적당히 마실 걸 하고 후회되고 그럴 때도 있고 또 술 마시면 살찌잖아요,"(사례6)

"아 좀 후회를.. 어제 너무 술을 많이 먹었다.. 기억, 일단 나한테 기억이 없으니까 기억 안 나는 걸 또 그때 내가 무슨 짓을 했을지 몰라서, 쪽팔려서. 다음부터 술 안 먹어야 겠다 그런 생각하고..."(사례4)

"어 저는 어떻게 하나 똑같겠지만.. 기, 기분이 되게 좋아져요.. 뭐 기분 좋고.. 술 먹으면.. 아 네.. 기분이 업이 되죠."(사례10)

술을 마시는 이유

감정적 요인

전체 10사례 중에서 8사례에서 기분이 안 좋을 때 술을 마신다고 보고하였고 또한 전체의 6사례에서 기분이 좋을 때 마신다고 하여 감정적인 요인이 술을 마시는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술을 마시고 싶을 때 마신다고 보고한 경우도 10사례 중에서 3사례에 나타났다.

"제.. 저는 술 마신다는 게, 기분이 좀 많이 안 좋거나... 기분이 안 좋을.. 성적이 제일.. 교수님이랑 얘기를 하다가 이제 발표를 하는데, 좀 많이 이렇게 비판을 많이 받으면.. 좀 많이 우울하잖아요. 그면 그.. 그것은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많이 그러니까. 아 오늘 술 먹자 그러면 오늘 술 먹고, 그래서 술

www.kci.go.kr

먹자고 하면 그냥 따라가서 같이 이렇게 마시고. ”(사례5)

“제가 일단 술을 좋아하니까 기분이 좋으면 또 좋다고 술 먹고... 또 사람 만나는 걸 되게 좋아하는 편이어서 그 사람들 만날 때 또 술을 먹고. 그니깐 기분이 좋을 땐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해요.. 그럼 그 기간에는 또 만나서 먹고.”(사례2)

“네.. 그날 기분이거나 아니면.. 그냥.. 그냥 이유 없이 술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사례3)

관계적 요인

모든 사례에서 친구, 주변 사람의 영향으로 술을 마신다고 보고하여 친구나 주변 사람의 영향이 술을 마시는 일반적 이유였다. 전형적인 반응으로는 소속감이나 유대감 같은 인간관계나 친해지기 위해서, 학과 모임이나 선배와 의무적으로, 이성과의 만남이나 이별 때문에 등이 있었다.

“술을 마심으로써도 좋지만 그냥 친구들이랑 함께 한다는 그 자체가 좋아서 마시는 것 같습니다.. 옆에 없다면 저 혼자는 안 마시거든요. 우선은 한 번씩 다 돌아가면서 (술 마시자) 해서”(사례6)

“이것도 다 인맥,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막 술 먹고 노는 것 같아도 이렇게 다 돈독해지고 이런 게, 언젠가는 이 친구들이 나한테 다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사례8)

“막 위에, 아 그런 거는 억지로 그냥 먹는 건데, 위에 선배들이 부르니까 가서 먹는 거고... 그냥 선배들이 부를 때는요, 그냥 술 땡긴다 그냥.. 바로 불려가서 먹는 거고.. 내가 마시게 되는 이렇게. 위에 선배 아니면, 시험 스트레스... 음. 그리고 그냥.. 영향을 주는 것.. 그냥 선배가 제일 많이 차지하는 거 같아요.”(사례4)

“으음.. 아마도 이성문제가 가장 제 나이 때는 이성문제가 아닐까 제 생각에는 그걸 것.. 아 개인적으로 음 잘되는 경우도 마시고 뭐 안 되는 경우도 마시니까..”(사례7)

상황적 요인

다양한 상황적 요인들이 나타났다. 안 좋을 일이 있을 때가 전체 10사례 중에서 7사례였고 그 외에도 분위기에 따라서, 게임을 하면서, 다른 할 일이 없고 심심해서, 음식이나 날씨에 맞추어 술을 마신다는 응답이 전형적이었다. 드문 반응으로는 좋은 일이 있을 때, 공부가 안 될 때 혹은 버릇이나 습관으로 술을 마신다고 보고하였다.

“음.. 그냥 스트레스 받는 게 있으면 피하는 거.. 그런 거. 그니까 내가 원해서 먹는 건 취하고 싶어서 이런 거. 짜증나는 일 있거나... 어.. 짜증나는 일 있으면 그냥, 그 짜증나는 일 생각하기 싫으니까 술 먹고 싶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사례4)

“분위기에 이끌려서 마시거나.. 그 분위기가 이제 좋으니까, 이제 아 좋은 일이 생기겠구나, 재미있겠구나. 이러니까

www.kci.go.kr

이제 또 기분이 업 되는 거죠. 그래 술 먹는 것도 그 분위기가 좋아서 먹는 거지, 딱히 제가 찾는 거 그런 건 없는데.." (사례5)

"또.. 마시다 보면 게임 같은 거 하면 자기는 이제 술 먹을 만큼 다 먹었는데 게임에서 지면은 또 먹어야 되잖아요."(사례9)

"그냥 막걸리? 비 오는 날 막걸리랑 파전 먹고 싶을 때.. 그때는 친구들.. 먹자 먹자고 해서 그냥 먹고.. 날씨가 좋을 때는 그냥. 저녁에 맥주.. 네. 그런 거나 아니면 그냥 삼겹살 이런 거 먹고 싶을 때.. 아님 치킨에 맥주.."(사례3)

"친구분 친구들끼리 만나서 거의 습관적으로 먹으니까 음 그게... 습관적 습관적이라고 해야 되나.. 일단 친구들끼리 모이면 뭐 저희들 같은 남자들이니까 모이면 술이라던가 뭐 게임 한 번씩 하러 가는데 게임 끝나고 술 먹으러 간다거나 거의 술이 들어가거든요.. 저도 습관적인

표 4. 술을 마시는 이유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핵심개념	영역	범주	응답빈도
술을 마시는 이유	감정적 요인	• 기분 안 좋을 때 술 마심	전형적(8)
		• 기분 좋을 때 술 마심	전형적(6)
		• 이유 없이 술을 마시고 싶을 때	드문(3)
	관계적 요인	• 친구, 주변사람의 영향으로 술 마심	일반적(10)
		• 인간관계(소속감, 유대감), 친해지기 위해 술 마심	전형적(6)
		• 학과모임, 선배와 의무적으로 마시게 됨	전형적(6)
		• 이성과의 만남, 이별로 술 마심	전형적(5)
	상황적 요인	• 안 좋은 일 있을 때 술 마심	전형적(7)
		• 분위기에 따라 술 마심	전형적(6)
		• 게임하며 술 마심	전형적(5)
		• 다른 할 것이 없고 심심해서 술 마심	전형적(5)
		• 음식, 날씨에 맞춰 술 마심	전형적(5)
		• 좋은 일 있을 때 술 마심	드문(4)
		• 공부가 안 될 때 술 마심	드문(3)
		• 버릇, 습관으로 술 마심	드문(2)
	이차적 획득 요인	• 깊이 있는 대화하며 더 친해지기 위해	전형적(8)
		• 스트레스 해소	전형적(7)

www.kci.go.kr

이런 느낌이죠."(사례7)

이차적 획득 요인

전체 10사례 중에서 8사례에서 술을 마시면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해 더 친밀해 진다고 응답하였고 또 다른 전형적인 반응에는 스트레스 해소가 있었다.

"개인적으로 보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구요.... 혼자 스트레스가 안 되고 제어가 안 돼 가지고, 먹는 편이 많고.. 상황적으로. 학교에서 같은 경우는, 그 뭐 시험 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당연히 시험 때나 이런 때는 공부를 해야 되고, 좀 스트레스를 받는 게 정상인데, 제가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못 견뎌해요. 엄청나게 힘들어서 무조건 먹으려 그러고. "(사례2)

"그냥 친구들끼리 이야기하자 이렇게 하면 부담스러우니까 술 먹자 이렇게 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매개체 같은.. 네 이야기.. 이야기하는데 부담을 줄여주는 것 같아요.... 다음에 이야기 할 것 있으면 그 때. 오늘 약속잡자 해 가지고 저녁 먹고, 만나거나 아니면 같이 저녁 먹고 술 먹거나.. 네, 조금 더 진솔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뭐 약간 직설적이더라도 음 어떻게, 네..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사례3)

술을 배우는 과정

처음 술을 마시게 되는 과정

초등학교가 10사례 중에서 6사례로 전형적이었고 중학교는 3사례로 드물었다. 초등학교의 경우 술인지 모르고 마시는 경우와 성인의 권유로 마시게 되는 경우들이 있었고 중학교의 경우는 호기심이나 친구들과 놀다가 배우는 경우가 있었다.

"아 그 완전 모르고 먹었을.. 어릴 때 초등학교 때인데 그냥 컵에 물인 줄 알고 아빠가 따라 놓은 거예요 몰랐죠. 먹고 아 쓰다...그래 가지고 바로 뱉었는데.."(사례6)

"솔직히 그 전에는 진짜 생각이 안 나고요. 중2 때 그니까, 저희 집에서 저랑 제일 친한 여자친구랑.. 그니까 단짝이었는데.. 그러니까 술이란 게 궁금해서.. 술을 마시려고 했어요..... 그래서 간이 컸어요, 진짜. 그것도 한 병을 사 온 게 아니라 두 병을 사 온 거예요.. 그 맛.. 주량과 맛을 모르니까. 그냥 한 사람당.. 그니까 두 명이서 먹는 건데 한 병이면 곤란하니깐.. 사이좋게 두 병을 산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구랑, 이제 잔이 집에는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안 먹는 집안도. 그래서 이제 따랐어요. 한 병씩.. 아 한 잔씩 따랐는데.. 그 친구는 원래 좀 잘 먹는 집안인가 봐요. 근데 제가 두 잔 먹고 뻗은 거예요."(사례1)

주기적으로 마시게 되는 과정

고등학교 때와 수능을 마친 시기가 전체 10사례 중에서 7사례로 전형적이었고 2사례에서는 대학입학 이후에 술을 주기적으로 마시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www.kci.go.kr

"처음에는 그냥 아, 쓰다 막 이렇게 했는데, 쓰잖아요. 진짜 처음에는 이걸 왜 마시지? 이런 생각하면서도 애들 먹으니까 같이 이렇게 먹다보니까 기분이 이제 좋아지니까 저도 이제 거기 매력에 좀 빠져가지고 고등학교 때도 그랬거든요. 애들끼리 그냥 즉흥적으로 그냥. 고등학교 때 그랬는데.. 제가 **고를 나왔는데 제 친구가 후문에 슈퍼를 자기 어머니가 하셔서 그 친구 집에 매일 가지고 소주 자기가 들고 오고 친구가 집에서. 그 때는 그렇게 자주는 안 먹고, 한 한 달에 두세 번."(사례8)

"주기적으로.. 대학교 삼학년 때부터인제.. 원래는 교회를 다니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어서 고등학교 때 그런 일도 있고 해서 음 그 잘 안 마셨거든요 음 근데 그렇게 되면 아예 친구들이 교회 친구분이 사회친구들은 아예 없어요. 음 네 그거 때문에"(사례6)

양이 늘어가는 과정(폭음의 시작)

구체적으로 폭음이 시작된 시기는 대학 신입생 때와 학과,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가 전형적이었다.

"음 대학교 1학년 때요 그때가 술을 엄청 많이 마셨고 잘 마셨거든요 술을 먹을 그때는 소주 8병 마셨거든요 지금은 그리 못 마시는데 예비대 가서 그러니까 입학하기 전에 미리 엠티처럼 이렇게 놀러 가는 게 있는데 그 전까지는 소주를 안 좋아했었거든요 술 먹다 보니까 들어가더라고요.."(사례7)

"동네.. 진짜.. 많이 먹었을 때는 필름 끊긴 적이 있었어요. 저 동아리가.. 운동 동아리를 하나 있는. 들었는데.. 동아리 두 개란 말이에요.. 학술동아리 하나랑 운동하는 동아리 하나 들었는데.... 거기는 진짜 다 술을 잘 먹는 사람만 가입을 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자애들도 진짜.. 애들이 술을 안 취해요.. 그래서 저도 막.. 근데 배구동아리 거기 가서 엄청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사례3)

가족상황

아버지

10사례 중에서 9사례에서 아버지는 술을 잘 드시는 것으로 응답하여 아버지가 술을 잘 마시는 것이 전형적임을 알 수 있었다.

"네...좀 많이 하셔요.. 아버지가 회사일도 있으시고 하니까 음 거의 매일 드시는 데.. 주말이면 좀 저희 아버지가 또 지금 하시면서 일을 하시면서도 주말 주말농장처럼 하신다고 어디 그 산에다가 닭이랑 돼지랑 이렇게 개를 키우시는데 주말에 또 거기 계시면서 또 거기 계시니까 아버지 친구분들이 또 오시니까 거기 또 주말에는 거기서 드시고 평일에는 또 회사 때문에 드시고 하니까 뭐 매일 드시고 뭐 주로 집에 안가고 안 가서 잘은 모르겠는데..."(사례10)

아버지 외의 가족구성원

친척들도 술을 잘 마시는 경우도 5사례 있어 전형적인 반면에 어머니와 동생들은 술을 잘 못 마시는 경우도 10사례 중에 5사례나 있

www.kci.go.kr

어 전형적이었다.

"어머니가 술을 진짜 못해서.. 제가 좀 어머니를 닮아가지고 한잔 먹어도 뻘게지고"(사례10)

"왜냐면 다른 큰 아빠나 작은 고모 같은, 그리고 또 삼촌도 한 명 계시거든요. 그 삼촌도 술을 엄청 잘 드시거든요. 거의 뭐 그 삼촌이 취한 거는 못 본 거 같아요. 왜냐면 저희는 어리니까 거의 술을 주셔도 계속 권하지는 않는데 엄청 많이 드시거든요 막. 빈 잔인데 또 먹고 또 먹고 이러신다 말이에요. 그런 거 봤는데도 안 취하시는 거 보면 술은 어느 새 거의 20병 가까이 되어있고.. 술 먹는 사람은 딱 정해져있어요. 큰 아빠랑 작은 고모랑 중간에 우리 아빠 밑에 삼촌. 그렇거든요.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도 술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 보면."(사례1)

폭음에 영향을 주는 요인

감정적 요인

폭음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감정적 요인을 보고하였는데 기분이 좋을 때, 힘들고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스트레스 해소하고 싶을 때, 술을 더 잘 마시는 사람에게 승부욕을 느낄 때 등을 보고하였다.

"저 같은 경우에는.. 기분 좋을 때 진짜 주체 안 하는 거 같아요. 네, 기분 나쁠 때는 이제 좀, 안 좋아질 거 같아서 그러면 다른 친구들한테도 민폐 끼칠 거 같아서. 기분 좋을 때 있잖아요. 막 뭔가 내가 기분 좋은 일이 생겼다. 돈이 갑자기 생겼다. 아니면 시험을 잘 봤다 그건 아인데, 시험이 끝났다 막 이러면 이제.. 완전 흥분해가지고. 이번에도 막 시험기간 동안. 시험기간에 제가 술을 잘 안 먹었거든요. 그래서 시험 끝나고 이제 친구들이 오늘이다 진짜 다 나와라 이래서... 네, 뭔가 기쁜 일 생기고 이라면 좀 많이 마시고.. 예에.. 그냥 그 때는 근데 어느 정도 취할 생각도 하고."(사례8)

표 5. 술을 배우는 과정, 가족상황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핵심개념	영역	범주	응답빈도
술을 배우는 과정	처음 술을 마시게 되는 과정	• 초등학생 때	전형적(6)
		• 중학생 때	드문(3)
	주기적으로 마시게 되는 과정	• 고등학생 때(수능직후 포함)	전형적(7)
		• 대학입학 후	드문(2)
	양이 늘게 되는 과정(폭음의 시작)	• 대학 신입생 때	전형적(7)
		• 학과, 동아리 활동하며	전형적(5)
가족상황	아버지	• 술을 잘 드심	전형적(9)
	아버지 외 가족 구성원	• 어머니와 동생은 술을 잘 못 마심	전형적(5)
		• 친척들이 술을 잘 드심	전형적(5)

www.kci.go.kr

"저 같은 경우..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듯이 뭔가 자기만의 힘든 게 있을 때는 주로 많이 마시는 거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가족이나, 여자 친구나."(사례8)

"일단 이건 상황에 따라 좀 다른데. 친구들하고는 좀 그런 게 없어요. 오래 봤던 사이고. 컨디션 안 좋으면 먹지마라 뭐 이 정돈데. 처음 보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든 남자든 상관없이.. 되게 애 같은 건데, 저보다 많이 마신다, 잘 마신다 싶으면 좀 약간 경쟁심이 들어요. 제가 쓸데없는 경쟁심이 많아서..... 그거 말고 심리적으로는, 내가 뭐 평소 때 안 좋아했던 사람이 너무 나보다 잘 마신다 많이 마신다 이러면 좀 이런 게 있어서 그렇고"(사례2)

"어 내 몸에 안 맞다는 걸 내가 내 자신이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 당시의 스트레스를 없애려면 술밖에 없는 같은 거예요. 뭐 이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은 둘 중 하나겠죠. 내가 수학을 너무 똑똑해서 잘 풀던가, 아니면 술을 먹고 그냥 아 오늘 하루만큼은 그냥 스트레스니깐 잊어버리고 술 먹고 그냥 놀자 그냥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술을 먹을 때만큼은 스트레스가 정말 잘 풀리는 것 같아요 어느 때보다... 그러니까 술 마심으로 인해서 잠시 그거를 잊을 수 있으니까 네 스트레스를요.. 왜냐면 스트레스라는 게 이걸 안 하고 있어도 가만히 있다가 생각나는 게 스트레스잖아요. 그니깐 어디서나 기억나고 못 살게 구는 게 스트레슨데. 술을 먹을 때만큼은 스트레스가 오는 것 같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잠시 머리 비우고 딴 거 할 수.. 왜냐하면 술집에 가면은 텔레비전도 나오고 음악 소리도 나오고 친구들 이야기하는 것도 들어야 되고 하니까.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제가 안고 있던 스트레스를 잠시나마 잊을 수 있으니까.."(사례1)

관계적 요인

전체 10사례 중에서 9사례에서 학과, 모임, 행사가 있을 때 폭음을 하게 된다고 보고하였고 다음으로 사람들과 만날 때가 8사례로 전형적이었다. 드물게는 이성과의 이별이나 이성문제를 언급하였다.

"음.. 모임 때문에도 많은 것 같은데. 대학교 오니까 무슨 뭐 개강 총회, 종강 총회, 무슨 뭐 동문. 뭐 하면.. 모임만 해도 한 달에 한 몇 개씩 해서. 그런 거 모임 때문에. 모이면 무조건 술이니까 대학생은, 밥이 아니고.. 술로 시작하니까 그거 때문에 먹는 것도 많은 거 같아요. 대학생들은 모이면 무조건 술인 거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말고 개총 이런 건 모르겠는데요. 여총 때, 여자끼리 모이니까 그 때는, 아, 남자선배들은 술 못 먹겠다 싶으면 빠지게 해주는데 여자 선배들은 그게 아니니까. 그 여총 그거 때문에도 엄청 많이 먹는 거 같아요. 거기서는 그냥, 아예 거의 다 100%, 1학년 여자애들은 취해야 되고 그런 것도 있고. 그 때 술 제일 많이 먹는 거. 그것 때문에 그래서 좀 네 공대라서 여자가 많이 없어서. 여자끼리 모임하면 그렇게 되요."(사례4)

www.kci.go.kr

"그냥 뭐 계획은 처음에 나갈 때는 아무래도 그 다음날 학교 수업 있거나 다른 일 있으면 오늘은 이제 친구들이 다 이렇게 여러 명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 있으면 이제 좀 얼굴이나 보자고 나가는데 또 막상 앉아서 있다 보면은 친구들 다 마시는데 혼자 있으면 혼자 멀뚱히 앉아있으면 좀 무안한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더 마시게 되고."(사례9)

"내가 이성문제.. 만약 좋아하는 여자가 있는데 잘 안 된다거나 음 여자 친구가 있는데 싸웠다거나 헤어졌다거나 이럴 경우 술 마신 경우가 쉬운... 으음... 아마도 이성문제가 가장 제 나이 때는 이성문제가 아닐까.... 그럴 때 많이 마시고 여자 친구랑 헤어졌다거나 그렇게 되면 많이 마시죠."(사례7)

상황적 요인

다양한 상황적 요인이 폭음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금이 아니면 놀 수 없다는 생각이라든가, 군입대, 분위기가 좋아서, 자취를 시작하며 등이 그 예이다.

"수능 끝나면 이렇게 뭐 대학생 이제 입학하면 해방된 기분라고 하나 그런 거나 스무 살 때 아마 술을 많이 마시게 되죠 나는 성인이니까 마셔야 겠다 이래서 주로 마시는 것 같은데 예 그런 것도 좀 있다고 생각하는 데, 뭐 이런 것 같아요 대학생은 술 대학생은 술 이렇게 라고 생각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환상이라 해야 되나 아니면 대학생 술 먹고 이러는 게 고등학교 때는 대놓고 못하는 건데 이제 아까 말씀 말 하신 거 못해본 것을 해보는 거니까"(사례7)

"제가 군대를 12월 달에 이제 확정된 게 10월 달쯤이었어요. 그 1학년 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어 정말 그 때는 군대 가면 전 그냥 아저씨가 되어서 나오는 그냥 철없을 때 그런 건 줄만 알고 아 내가 형들만 가는 그런 군대에 나도 이제 가는 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 대개 심란했어요...음 공부가 뭐가 중요해 이러면서 공부도 안 했었고 또 그냥 여기저기 다 섞이면서 형형 우리 놀아요, 놀아요하면서 뭐하고 놀까 음 동아리방 가서 뭐 사서 술이나 먹어요하면서 먹고 음 제가 생일날 그쯤에 술이나 먹어요 생일날 그쯤이면 생일 때 복분자 무슨 구했었어요.. 형. 저 그러면 저 복분자주 있는데 가서 먹어요. 그러면서 조금 그 때 거의 매일같이 술을 먹었는데... 음 뭐랄까 두 달, 세 달 동안 매일같이 술 먹었는데..."(사례10)

"어 저는 저는 대개 저는 제 개인적으로 아 여기서 조절해야겠다. 아 이렇게 해서 뭐 중간에 나는 힘드니까 가볼게라고 그렇게 말을 잘 하지 못하는 편이라... 한 번 시작을 하면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끝까지 가는 것 같아요. 제가 힘들고 개인적으로 돈이 없건 그거를 떠나서 그런 분위기나 노는 게 좀 마음에 들어가지고요.. 음 되게 힘들어서 음 개인적으로 기분은 후회스러워요 아 이렇게까지 먹 먹을 자리가 아니었는데 왜 어떻게 휩쓸리다 못해 어 분위기에 따라가

www.kci.go.kr

표 6. 폭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핵심개념	영역	범주	응답빈도
폭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감정적 요인	• 기분이 좋을 때	드문(3)
		• 힘들고 기분 좋지 않을 때	드문(2)
		• 스트레스 해소하고 싶을 때	드문(2)
		• 승부욕을 느낄 때	드문(2)
	관계적 요인	• 학과, 모임, 행사	전형적(9)
		• 사람(친구, 이성친구, 선배)들과 만날 때	전형적(8)
		• 이성과 이별, 이성문제	드문(2)
	상황적 요인	• 대학 입학 이후, 성인이 되어 지금이 아니면 놀 수 없다는 생각	드문(4)
		• 군입대	드문(2)
		• 분위기가 좋아서	드문(2)
		• 자취를 시작하며	드문(2)

다 보니까 음 조절 못하고 많이 먹은 것 같아서 음 그게 많이 술자리가 후회스럽죠.”(사례10)

“대학교 때는 그냥 무조건 엄청 많이 먹었던 거 같아요. 옛날 같았으면 그냥, 내가 째릴(정신 못차릴) 거 같으, 어 나 고등학생이면 졸업하고 치면, 내가 째릴(정신 못 차릴) 것 같으면 그냥 그만 먹고, 집에도 가야되니까. 근데 여기는 집에도 안 가도 되고, 그냥 바로 혼자 있으니까. 많이 먹게 되는 거 같아요..”(사례4)

논 의

본 연구는 심각한 수시 폭음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음주경험과 이들의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밝혀진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심각한 수시 폭음 대학생들은 전형적으로 친한 사람들과 가까운 곳에서 일주일에 2-3회, 2-3차에 이르는 술 모임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술자리는 식사나 가벼운 술로 시작하지만 술을 깨기 위해 술을 더 마시면서 새벽까지 모임이 이어지고 있었다. 학교근처에서 주변 친구들과 수시로 음주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음주가 수시 폭음 대학생들의 일상생활이 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하다. 즉, 음주가 사교나 다른 목적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의 규칙적인 현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데 이런 현상은 알코올 중독자의 주된 특징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Levinthal, 2008).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 개개인의 노력으로는 음주문제에 대한 대처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대학차원에서 음주의 사회적, 개인적 손실에

www.kci.go.kr

대한 예방 교육과 함께 술에 관대한 문화 자체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한 번 형성된 음주습관이 잘 변화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O'Neill, Parra, & Sher, 2001)를 고려한다면 음주를 시작하는 초기, 특히 대학 신입생 시기에 대한 금주 및 절주에 대한 예방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Meeks, Heit와 Page(1994)는 저위험 청소년들의 경우에 고위험 청소년들과 달리 불법약물 사용이 신체적, 법적으로 야기하는 위험한 결과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것이 약물사용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밝혔다(Levinthal, 2008에서 재인용). 이러한 결과들은 심각한 음주문제를 경험하기 이전인 대학신입생 시기에 음주의 피해에 대한 적절한 교육과 정보전달이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심각한 수시 폭음 대학생들은 술을 마시고 난 뒤에 신체적인 불편함이나 부정적인 영향을 경험을 한 후, 후회와 술을 줄여야겠다고 생각하였지만 이들은 자신의 음주행동을 실제로 변화시키지는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이들이 내성이나 금단증상과 같은 직접적인 알코올 문제를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음주로 인한 문제를 경험하고 있고 현재 음주행동을 계속한다는 점에서 대학생 수시 폭음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비록 이들이 현재 술에 대해 자제력을 잃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알코올 중독이 초기에는 사교성 음주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들의 상태가 장기간에 걸쳐 알코올 남용이나 문제성 음주에 이를 수도 있다. 특히 많은 알코올 중독자가 자신의 음주가 자신과 주변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스스로는 자신의 상태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Levinthal, 2008)는 점에서 더욱 위험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심각한 수시 폭음 대학생들이 자신의 현재 상태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알코올 중독이나 문제성 음주에 이르지 않도록 음주습관과 태도를 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음주문제 예방을 위해 수시 폭음 대학생들에게 예방행동전략(protective behavioral strategies: PBS)을 교육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예방행동전략이란 술을 줄이기 위해 개인이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인지행동전략으로 얼마나 마시는지 알고 마시기, 천천히 마시기, 혼자 마시지 않기, 술을 마시면서 든든한 것을 함께 먹기 등 올바른 음주를 위한 지침들이다. 예방행동전략은 음주문제를 조절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가르치거나 배울 수 있으며 실제로 할 수 있는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음주개입전략과 차이가 있으며 음주량을 줄이고 음주문제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밝혀져 왔다(Martens, et al., 2005). 따라서 대학 신입생에게 음주에 관련된 예방행동전략들을 직접 교육하는 것도 음주문제를 예방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술을 마시는 일반적인 이유가 친구, 이성친구, 선배 등 사람들의 영향을 받는 관계적 요인이었다. 이는 심각한 수시 폭음 대학생들의 음주문제 개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이 음주와 대인관계의 관련성을 이해하는 점임을 잘 보여준다. 양적 연구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확인되었는데 주변에 음주하는 친구가 많을수록 술을 더 많이 마시고 음주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를 가진다는 점에서 그러하다(류미, 이민규, 신희천, 2010; Aagnostinelli, Brown & Miller, 1995; Bear & Carney, 1993; Martin & Hoffman, 1993; 정원철, 2006에서 재

www.kci.go.kr

인용). 또 다른 연구에서는 자신이 속한 사회 집단의 구성원들이 음주를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지에 대한 신념인 음주규준 역시 폭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Kitano, Chi, Rhee, Law, & Lubben, 1992). 주변 친구의 실제 음주행동보다 지각된 음주규준이 대학생들의 음주량을 더 강력하게 예언하고(Perkins, Haines, & Rice, 2005), 대학생들은 주변 대학생들이 자신보다 음주에 더 익숙하고(Prentice & Miller, 1993) 더 찬성한다고 추측하며(Perkins & Berkowitz, 1986), 이런 추측은 대학생들의 음주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한다. 특히, 장승옥(1997)에 의하면 한국에서도 음주규준이 음주량을 예측할 수 있는 좋은 지표였으며 변량분석 결과 음주규준은 음주량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따라서 심각한 수시 폭음 대학생의 음주문제에 개입함에 있어서 친구의 영향을 이해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음주규준이 편파적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인지적 개입이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주변 친구들의 음주량과 빈도에 대한 오지각, 적절한 음주규준에 대한 오지각 등을 보다 합리적인 신념으로 수정할 수 있도록 소크라테스식 대화나 논박과 같은 기법이 유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친구의 음주와 관련된 요구를 적절하게 거절할 수 있는 기술을 훈련시키는 것도 유용할 수 있다. 역할연습을 통해 적절한 자기표현을 훈련시키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술을 마시는 전형적인 이유 중의 하나가 부정적인 기분이 들거나 안 좋은 일이 있을 때였다. 폭음에 영향을 주는 요인도 힘들고 기분이 좋지 않거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싶을 때라고 응답하여 심각한 수시 폭음 대학생들을 부정적 정서에 대처하기 위해 술을 마시고 폭음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Kassel, Jackson과 Unrod(2000)의 연구에서도 동기유형 중에서 대처동기가 문제성 음주를 예언하는 유일한 동기임을 밝혔다. 이러한 결과들은 사회적 상황에서 대처기술이 부족한 대학생들이 자신의 부족한 대처기술을 만회하기 위해 술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음주가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술을 마시면 깊이 있는 대화가 가능하고 친하게 된다는 이들의 지각은 폭음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심각한 수시 폭음 대학생들에게 자신의 부정적 정서를 조절할 수 있는 기술을 익히게 하여 음주 이외의 다른 대처방안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심각한 수시 폭음을 감소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이들은 전형적으로 초등학교 시절에 우연히 술을 처음으로 마시고 고등학교 시절부터 주기적으로 마시기 시작하며 대학 신입생 때, 학과와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음주량이 늘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의 음주역사 즉, 고등학교 시절 음주 경험이 대학생 폭음과 관련이 있다는 Hildebrand, Johnson과 Bogle(2001)을 지지하는 결과이며 대학 이전의 음주가 대학생 수시 폭음의 중요한 예언변인이라는 McCabe(2002)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렇게 심각한 수시 폭음이 음주시작 연령이 중요하다는 점은 음주와 관련된 예방교육이 음주가 법적으로 허락되는 대학생 시기가 아니라 그 이전에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고 보인다. 즉, 어린 나이에 음주를 시작하면 대학생 이후에 음주를 시작한 사람에 비해 알코올에 대한 거부감이 작을 수 있고 음주규준 역시 보다 허용적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초·중·

www.kci.go.kr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적절한 음주 예방교육이 필요할 것이며 각 가정에서도 초·중·고등학교의 음주에 대해 엄격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분위기, 게임, 음식 및 날씨, 버릇 및 습관, 공부가 안 되거나 심심해서 등 다양한 상황적 요인이 술을 마시게 만든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들이 음주 이외의 다른 대안적인 활동이나 문화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술을 마신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즉, 음주는 대학생들이 여가 시간에 가장 손쉽게 할 수 있고 경제적이며 공통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이들이 술을 마신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문화 전반에서도 그러한데 술문화 이외의 다른 대안적인 문화가 없기 때문에 직장인 모임이든 친구 모임이든 술을 마시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를 강화하는 한 가지 요인은 대중매체의 역할이다. TV 드라마를 보면 직장의 회식, 친구 간의 사교모임, 가족모임, 남녀 간의 데이트 등 다양한 모임에서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주인공이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슬픈 상황이든 기쁜 상황이든 술이 등장하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방송 태도가 은연중에 음주에 대한 개방성을 촉진하고 대학생들이 다양한 상황에서 술을 찾도록 학습시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흡연장면과 마찬가지로 음주장면이 대중매체에 노출되는 것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심각한 수시 폭음을 하는 대학생들의 심각한 수시 폭음 경험을 심층적으로 살펴보았고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생 음주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을 검토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가 소수의 참여자에 대한 면접 자료로부터 결론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일반화, 연구자들의 주관성 등 질적 연구의 한계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질적 연구결과를 토대로 실제 수시 폭음 대학생, 폭음 대학생, 일반음주 대학생을 집단으로 나누어 술을 마시는 과정, 술을 마시는 이유, 술을 배우게 되는 과정, 가족상황 등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들이 세 집단에서 동일한지 양적 연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인석, 현명호, 유제민 (2001). Data Mining을 이용한 음주 및 음주문제의 위험요인과 취약성요인에 관한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6(2), 75-95.

노컷뉴스 (2011. 2. 16.). 대학생 1-명 7명이 폭음.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719923.

류 미, 이민규, 신희천 (2010). 대학생의 폭음 관련 사회인지적 요인과 음주정도의 관계 -지각된 음주규준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6(1), 63-79.

변영순 (2001). 성격특성이 음주실태와 음주관련 문제에 미치는 영향: 남자대학생을 중심으로. 기본간호학회지, 8(2), 270-278.

보건복지부 (2007). 국민건강 관련 보도자료(6월 11일). 서울: 보건복지부.

서경현 (2003). 음주동기, 문제음주 및 음주 가족력과 대학생의 데이트 폭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9(2), 61-78.

서경현, 김보연 (2011). 대처 음주의 개념과 측정: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건

www.kci.go.kr

강, 16(4), 815-825.

서울신문 (2011. 2. 17.). 남대학생 3명 중 1명 '상습 폭음'.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10217008010.

신영주, 김유숙 (2009). 여성 알코올 의존자의 중독 과정-근거이론 접근방법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4(4), 638-710.

양난미 (2010). 성, 음주정도에 따른 대학생의 음주문제 이해. 상담학연구, 11(4), 1707-1727.

임선영, 조현섭, 이영호 (2005). 여성 알코올중독자의 중독과정에 대한 사례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4(4), 869-886.

장승옥 (1997). 대학생들의 음주행위와 음주규범. 한국사회복지학, 31, 423-440.

장승옥 (2001). 대학생 음주행위와 문제음주 인지도의 추이: 1996-2000. 청소년학연구, 8(2), 259 -278.

정슬기 (2008). 여성 직장인의 음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25(3), 21-43.

정원철 (2006). 대학생의 문제성음주의 실태와 관련 심리사회적 요인. 한국사회복지학, 58(1), 347-372.

조선일보 (2012.5.31). 술에 너그러운 문화, 범죄 키우는 한국(1) '酒暴(주폭: 음주행패자)' 신고 年36만건… 경찰업무의 26.6%.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5/31/2012053100164.html?related_all.

조선일보 (2012.6.1). 술에 너그러운 문화, 범죄 키우는 한국(2) 살인・강간 38%가 만취 상태서 범행.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6/01/2012060100202.html.

천성수 (2007). 대학생 음주; 미국대학의 음주문제 감소를 위한 노력. 건강생활, 55, 9-11.

한소영, 신희천 (2010). 내담자의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 경험과 상담성과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4), 901-929.

한소영, 이민규, 신희천 (2005). 남녀 대학생의 음주문제 위험요인: 사회인지적 요인과 정서적 요인의 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4), 1003-1019.

Archie, S., Zangeneh Kazemi, A., & Akhtar-Danesh, N. (2012). Concurrent binge drinking and depression among Canadian youth: Prevalence, patterns, and suicidality. *Alcohol, 46*(2), 165-172.

Babor, T. F., De la Fuente, J. R., Saunders, J., & Grant, M. (1989). *AUDIT-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 Guidelines for Use in Primary Health Care*. World Health Organization, Division of Mental Health, Geneva.

Cooper, M. L. (1994). Motivation for alcohol use among adolescents: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four factor model. *Psychological Assessment, 6,* 117-128.

Cox, M., & Klinger, E. (1998). A motivational model of alcohol use.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7,* 168-180.

Ham, L. S., & Hope, D. A. (2003). College students and problematic drinking: A review of the literature. *Clinical Psychology Review, 23*(5), 719 -759.

Harford, T. C., Wechsler, H., & Muthen, B. O. (2002). The impact of current residence and high school drinking on alcohol problems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63*(3), 271-279.

www.kci.go.kr

Hildebrand, K. M., Johnson, D. J., & Bogle, K. (2001). Comparison of patterns of alcohol use between high school and college athletes and non-athletes. *College Student Journal, 35*(3), 358-365.

Hill. C. E., Thompson. B. J., & Williams. E. N. (1997). A Guide to conducting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The Counseling Psychologist, 25,* 517-572.

Hill. C. E., Knox, S., Thompson, B. J., Williams. E. N., Hess. S. A., & Ladany. N. (2005). Consensual Qualitive Research: An Updat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 196-205.

Kassel, J. D., Jackson, S. I., & Unrod, M. (2000). Generalized expectancies for negative mood regulation and problem drinking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Studies of Alcohol, 61*, 332-340.

Kitano, H., Chi, I., Rhee, S., Law C. K., & Lubben, J. E. (1992). Norms and alcohol consumption: Japanese in Japan, Hawaii and California. *Journal of Studies on Alchol, 53*(1), 99-93.

Lansford, J. E., Erath, S., Yu, T., Pettit, G. S., Dodge, K. A., & Bates, J. E. (2008). The developmental course of illicit substance use from age 12 to 22: links with depressive, anxiety, and behavior disorders at age 18.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9*(8), 877-885.

Levinthal, C. F. (2008). 약물, 행동, 그리고 현대사회: 정신약물학 입문(4판) [*Drugs, behavior, and modern society, 4th edition*]. (박소현, 김문수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원전은 2005에 출판).

Martens, M. P., Ferrier, A. G., Sheehy, M. J., Corbett, K., Anderson, D. A., & Simmons, A. (2005). Development of the Protective Behavioral Strategies Survey.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66*(5), 698-705.

McCabe, S. E. (2002). Gender differences in collegiate risk factors for heavy episodic drinking.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63*, 49-56.

Okoro, C. A., Brewer, R. D., Naimi, T. S., Moriarty, D. G., Giles, W. H., & Mokdad, A. H. (2004). Binge drinking and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Do popular perceptions match reality? *Americ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26*, 230-233.

O'Neill, S. E., Parra, G. R., & Sher, K. J. (2001). Clinical relevance of heavy drinking during the college years: Cross-sectional and prospective perspectives. *Psychology of Addictive Behaviors, 15*(4), 350-359.

Perkins, H. W., & Berkowitz, A. D. (1986). Perceiving the community norms of alcohol use among students: Some research implications for campus alcohol education programming.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Addictions, 21,* 961-976.

Perkins, H. W., Haines, M. P., & Rice, R. (2005). Misperceiving the college drinking norm and related problems: A nationwide study of exposure to prevention information, perceived norms and student alcohol misuse.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66,* 470-478.

Pimentel, E. R,. & Presley, C. A. (2006). The introduction of the heavy and frequent drinker: a proposed classification to increase

www.kci.go.kr

accuracy of alcohol assessments in postsecondary educational settings.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67*(2), 324-331.

Prentice, D. A., & Miller, D. T. (1993). Pluralistic ignorance and alcohol use on campus: Some consequences of misperceiving the social nor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 243-256.

Read, J. P., Beattie, M., Chamberlain, R., & Merrill, J. E. (2008). Beyond the "Binge" threshold: Heavy drinking patterns and their association with alcohol involvement indices in college students. *Addictive Behaviors, 33*(2), 225-234.

Thombs, D. L. (2000). A test of the perceived norms model to explain drinking patterns among university student athletes. *Journal of American College Health, 49*(2), 75-83.

Wechsler, H., Lee, J. E., Kuo, M., Seibring, M., Nelson, T. F., &. Lee, H. P. (2002). Trends in college binge drinking during a period of increased prevention efforts: Findings from four Harvard School of Public Health study surveys: 1993-2001. *Journal of American College Health, 50,* 203-217.

Wechsler, H., & Nelson, T. F. (2001). Binge drinking and the American College student: What's five drinking. *Journal of Addictive Behaviors, 15*(4), 287-291.

원 고 접 수 일 : 2012. 7. 11
수정원고접수일 : 2012. 10. 4
게 재 결 정 일 : 2012. 11. 27

www.kci.go.kr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013, Vol. 25, No. 1, 83-109

Qualitative Research about Experiences of Heavy and Frequent Binge Drinking among College Students

Nan Mee Yang **Young Ie Song**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identify the actual experiences of heavy and frequent binge drinkers and causes of heavy and frequent drinking.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was employed. Ten college students who satisfied the criteria of heavy and frequent binge drinking participated. The results showed that heavy and frequent binge drinkers consumed alcohol two or three times a week and their drinking moved onto the second and third rounds in a single day. After drinking, the participants felt mentally and physically uncomfortable and regretted excessive drinking, yet with better feeling on the other hand. Also, the participants responded that while drinking, they could improve bondings with others. They started drinking during elementary school years, consumed alcohol regularly during high school years, and finally started drinking excessively with friends during college years. Suggestions and limitations are discussed based on the research findings.

Key words : college students, frequent binge drinking,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www.kci.go.kr